

아직도 석면을 쓰는 나라가 있다고?

글_ 박진욱 고모는 대학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어.

그림_ 소경섭 삼촌



동무들 안녕. 오늘 고모는 석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동무들 석면에 관해 들어본 적 있어? 만약 들어 봤다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발견되었다든지,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에 석면이 있어서 위험

하다든지 하는 식의 이야기였을 거야. 대체 석면이 뭉기에 있는 거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걸까?

석면은 광물이야.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를 말하는데, 석면은 무척 독특한 광물

이야. 머리카락보다 5천 배나 가느다란 실 모양의 돌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거든. 실처럼 천을 짤 수도 있어. 불에 잘 타지 않고, 화확물질에 잘 녹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지. 그래서 석면의 영어 이름은 ‘불멸’이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생겨났대. 사람들은 석면을 아주 오래 전부터 썼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옷을 만들어 입었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집 짓는 데 쓰기도 하고 옷이나 식탁보를 만들기도 했지. 이집트에서는 시체를 싸는 천이나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대. 현대에는 그 쓰임이 더 많아졌어. 자동차 브레이크를 만드는 데, 파이프를 감싸는 데(열이나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야.) 쓰기도 하고,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석면이 들어간 단열재(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재료야.)를 쓰고, 석면을 섞은 시멘트를 벽에 바르기도 해.

석면이 들어간 것 중에 동무들이 가장 자주 보는 건 아마도 건물 천장에 네모반듯하게 붙어있는 하얀색 석고보드일 거야. 이게 학교 건물에 쓰이는 대표적인 석면이야. 수업 중에 우리 머리 위로 석면 가루가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지.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아주 오래된 학교 건물에만 석면이 쓰였고, 그런 오래된 학교들은 하나하나 석면을 없애고 있으니깐 말이야.

‘석면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 상태

에 있는 광물인데 왜 인간에게 해롭지?’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동무들이 있네. 하지만 자연에 존재한다고 모두 안전하고 좋은 것은 아니야.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은 폐암을 일으키기도 하거든. 석면도 그래.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무척 위험하지. 석면 먼지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늘고 뾰족해. 바늘과 비슷하게 생겼어. 작고 뾰족뾰족한 바늘이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봐. 폐안으로 들어간 석면 섬유는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폐에 박혀 있게 돼. 그리고 서서히 폐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것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 수십 년 뒤에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돼.

예전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석면을 다루거나, 고대 그리스처럼 노예를 시켜 작업을 하게 해서 석면 때문에 아파도 잘 모르고 넘어갔을 거야. 그러다가 20세기 즈음에 석면 제품을 많이 만들면서 여러 사람이 석면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석면 가루를 들이마시고 질병에 걸려 죽게 되면서, 그 위험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 석면은 지금 한국을 비롯해 50여 개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광물이야. 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금지하지 않고 고작 50여 개 나라만 금지했느냐고? 고모도 그게 무척 속상해. 아마도 석면이 튼튼하고 가격이 싸서일 거야. 석면 대신 사용할 수 있

는 재료들은 아직까지는 비싼 편이거든. 석면을 금지한 나라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해. 하지만 석면을 아직도 쓰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석면을 캐서, 역시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 수출하는 거지. 석면 공장도 그 나라들에 있고.

게다가 고모를 더 속상하게 하는 건, 이미 석면사용을 금지한 한국이 아직 석면을 쓰는 다른 나라에 석면으로 천을 짜는 기계를 수출했다는 거야. 석면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다가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먼저 금지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 더는 사업하기가 어려워졌지. 그래서 한국으로 기계를 들여와서 회사를 세우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석면으로 천을 짜는 일을 시켰어. 그 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렸고, 한국은 그제야 석면사용을 금지했어. 이랬던 한국이,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니까, 예전에 독일과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규제가 약한 국가로 석면 방직 기계를 수출하고, 그곳에 회사를 세워서 석면 제품을 만들고 있어. 당연히 그 석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은 옮겨졌고, 노동자들의 고통도 계속 됐어. 인도네시아의 공장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위험한 공장을 없애지 않고 우리가 당한 나쁜 짓을 우리보다 약한 이들에게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아참 동무들! 한국은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지만 그 이전에는 석면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을 공사할 때는 석면 먼지가 날릴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학교 교실 천장에 있는 하얀 석고보드가 떨어지면 주워서 가지고 놀면 안 돼. 혹시 석면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어른들이 치우도록 해야 해. 오래된 건물 벽이나 천장에 구멍이 났을 때 재미삼아 구멍을 더 파낸다거나, 파이프를 감싸고 있는 솜뭉치 같은 것에 구멍이 났을 때 주변의 솜뭉치를 뜯어내거나 하지 말았으면 해. 혹시라도 석면 먼지가 날려서 동무들이 들이마시게 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 29